

전남도, 저출생·지방소멸 극복 프로젝트 ‘시동’

산하 21개 공사·출연기관 참여
일·생활균형 실천 다짐대회
행복 자녀 돌봄시간 등 추진
김영록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전남도가 저출생·지방소멸 극복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전남도는 지난 5일 도청 왕인실에서 ‘저출생과 지방소멸 극복, 일·생활 균형이 답이다’라는 슬로건으로 도 공사·출연기관 일·생활균형 실천 다짐대회를 가졌고 7일 밝혔다.

도는 6~8세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 자녀 돌봄시간(1일 2시간)을 신설하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5일 부여하는 내용으로 ‘전남도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등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도 산하 21개 공사·출연기관도 일·생활균형을 이루는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를 만드는 데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김영록 지사와 공사·출연기관장 등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출연기관의 일·생활 균형 실천 우수사례 소개, 기관장과 2030직원이 함께하는 세대감감 토크, 전남 육아 아빠 사진전, 출생수당 318프로젝트 홍보 등으로 채워졌다.

특히 우수사례인 △사내부부의 유연근무를 활용한 슬기로운 육아 이야기 △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5일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도 공사·출연기관 일·생활균형 실천 다짐 대회’에 참석, 도 21개 공사·출연기관장과 일·생활균형 실천 서약을 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산부의 임신기 단축근무 △모두가 일하고 싶은 가족친화 조직문화 △육아휴직제를 통한 맘 편한 육아생활 등 관련 공사·출연기관 직원들이 직접 출연, 다양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표현하며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세대감감 토크는 결혼, 육아, 가족, 직장생활, 바람직한 조직문화 등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통해 세대 간 생각의 차이를 이해하고 다름을 존중하는 시간으로 진행

됐다. 부족한 부분은 일·생활 균형 실천 서약을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저출생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선 일과 생활이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대가 절

싧하다”며 “도청과 21개 출자·출연기관을 시작으로 일·생활 균형 문화가 도내 곳곳에 퍼져 많은 기관과 기업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광주시, 전일빌딩245에 ‘광주뷰티존’ 개장

광주시는 전일빌딩245 2층 남도관광센터에 ‘광주뷰티존’을 마련, 지난 5일부터 운영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뷰티존에는 지역 뷰티기업 회원으로 구성된 (사)광주화장품산업진흥회에서 선정한 비건 인증 제품, 미백·주름개선·탄력 등 기능성 제품, 탈모 증상 완화제품, 발 관리 제품 등 총 9종의 지역 대표 뷰티제품이 입점했다.

광주화장품산업진흥회는 △제품의 사업성(해당 제품 국내외 시장 현황, 제품 기술력, 우수성 등) △기업역량(해외 진출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여, 해외 바이어 확보, 수출 실적) △제품의 적정성(소비

자 대상 전시 및 판매) △기업준비성(제품 설명서 및 홈페이지 여부 등) 등을 종합 평가해 입점 대상을 선정했다.

특히 이들 제품은 특허원료, 특허기술, 임상실험결과 등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판로 확대 및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가 크다.

광주시는 광주뷰티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다양한 뷰티제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하고, 제품 판매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정보무늬(QR코드) 생성 등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 ‘3대 사망사고 줄이기 정책지원단 회의’ 개최

광주시는 지난 5일 시청 충무시설에서 교통사고, 자살, 산업재해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한 ‘3대 사망사고 줄이기 정책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광주지역 교통사고, 자살, 산업재해 3대 안전 취약 분야의 사망자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3대 사망사고 줄이기 운동본부’를 구성했다. 운동본부는 정책방향 자문을 담당하는 ‘정책지원단’과 시민안전 의식개선 및 실천활동을 전개하는 ‘시민실천단’ 등 2개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경찰청, 고용노동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공단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해 3대 사망사고 제로화 종합대책의 추진상황 등을 공유하고, 시민실천단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참석자들은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민실천단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시민실천단이 안전신문고 앱이나 전동킥보드 민원신고 시스템을 통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참여방식 다양화를 제안했다.

더불어 96개 행정복지센터와도 연계해 시민 밀착 홍보를 강화하고, 집중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교통안전공단 ‘공익제보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 교통안전시설 관리시스템(T-GIS) 구축, 24시간 정신응급상황 대응체계 강화,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 등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모집 열기 ‘후끈’

전국서 고향사랑 캠페인
올 들어서만 7000명 모집

전남도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시·군과 협력해 동계 전지훈련장, 진해 군항제, 여의도 봄꽃축제 등을 찾아 전남 고향사랑 실천 캠페인 홍보를 펼쳐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7000명을 모집했다.

특히 전지훈련차 전남에 체류하는 선수·임원을 대상으로 서포터즈 모집 활동을 펼쳐 비수기임에도 할인가맹점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표 봄축제인 진해 군항제와 여의도 봄꽃축제장에서는 전남도와 일선 시·군 직원들이 직접 홍보 활동을 펼치면서 서포터즈 가입을 희망하는 방문객으로 장사진을 이뤘

다.

광양에 전지훈련 동지를 마련한 구기종목의 한 선수는 “2년째 전남으로 전지훈련을 왔는데 이번에 서포터즈에 가입해 자주 가는 음식점에서 할인혜택을 받아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봄꽃축제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지방소멸 위기를 뉴스로 접하면서 심각성을 인식했는데, 전남도의 서포터즈 육성사업이 신선하게 다가온다”며 “전남을 응원하는 동반자로 가입했으니 올 여름 휴가는 전남에서 보내겠다”고 밝혔다.

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전남을 사랑하고 힘찬 응원을 약속하며 45만 서포터즈 가족이 된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린다”며 “5월과 8월에 열리는 서울장미축제와 대구 치맥 축제 등 대규모 축제·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전남 고향사랑 열기를 한층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오는 6월30일까지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신규 가입자와 추천인을 대상으로 1촌맺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총 252명에게 4000만원 상당의 남도장터 쿠폰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는 지역 농수축산물 촉진과 관광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전남 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100만명 모집 운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45만명이 가입했다.

가입자에게는 ‘전남사랑 도민증’을 발급해 전남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 식당·카페 등 230여 가맹점 할인과 남도장터 1만 포인트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곽지혜 기자

광주시 “시민참여예산 사업 제안하세요”

시정참여형 등 4개부문 대상
5월10일까지 누리집 등 접수

광주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5월10일까지 공모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민참여예산은 예산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사업은 시 소관 사무인 △시정참여형 △청년참여형과 자치구 소관사무인 △지역참여형 △동단위

계획형으로 나뉜다.

시정참여형은 광주시민의 생활 편익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당 5억원 이하 사업이다. 청년참여형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 등을 위한 사업으로 10억원 이하 사업에 대해 제안을 받는다. 또 지역참여형과 동단위계획형은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5000만원 이하 사업에 대해 제안을 받는다.

광주시는 시민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심사·선정해 시민참여예산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다만 단순 민원과 특정단체 사업, 중복성 사업, 일회성 공연·축제,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제안된 사업은 사업부서의 검토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총회 등을 거쳐 2025년도 예산안에 담겨 의회 승인 이후 최종 확정된다.

공모 참여희망자는 인터넷(광주시 누리집, 주민6참여), 이메일,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광주시는 특히 혁신적이고 참신한 제안 사업을 ‘시민광장 광주온’을 통해 접수받는다. 광주온에서 30일 동안 50표 이상 공감을 얻은 제안 사업은 사업부서, 전문가와 함께 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120콜센터(062-120)나 062-613-2431로 문의하면 된다. 노병하 기자